담양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창안학교' 운영

총 22개 팀 참여 내달 21일까지 7회 운영

담양군이 지난 2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지역창안학교'의 입교식을 개최했다.

총 22개 공동체(마을공동체 7팀, 소규모공동체 15팀)가 참여한 올해 창안학교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7회에 걸쳐 사업 성격별(마을경관조성 및 교육·문화·예술, 체험·소득·일자리)로 조를 나눠 사업 아이템 구상, 역량분석, 현장견학, 사업계획 작성 등으로 운영된다.

이날 창안학교 입교식은 개회식과 함께 김언호 커뮤니티와 경제 사무국장의 '마을기업의 이해와 사례' 특강, '2018년도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우수 공동체와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입교 신청 공동체 구성원 85명이 참석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은 교육,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계별 공동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4단계(창안학교-디딤단계-돋움단계-활력단계)로 운영되며, 창안학교 수료 공동체는 디딤단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업 성격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창안학교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061-383-8044~5)와 담양군청 풀뿌리경제계(061-380-30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음식점 위생·친절 수준 '향상'…80점 육박

친절도·위생청결도 78.7점…2017년 보다 4.4점 높아

여수시 음식점 위생·친절 수준이 80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해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235명이 음식점 6378개의 친절도와 위생 청결도를 연중 평가한 결과 위생 수준이 78.7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 점수는 2017년에 비해 4.4점이 높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 점수 향상 이유를 "시민평가단이 음식점을 방문해 평가표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시는 평가 내용을 업소에 통보한다"며 "시민평가단의 제안이 음식점 친절도와 위생청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평가단은 일반시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문화관광해설사, 위생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생·친절 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시는 시민평가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시민평가단 15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음식점의 위생과 친절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 운영뿐만 아니라, 위생교육, 지도·단속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

장흥군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19~2020년(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생활기반 확충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확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에는 유치면 부산면 등 2개면 14개소 사업대상지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유치 반월2구 배수로 확장공사, 부산 기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을 조기 마무리 하였다.

2019년도부터 2020년(2년간)에는 용산?장동?장평?유치?부산면 등 5개면 19개소 사업대상지에 2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5개면 9건의 사업대상지에 조기 투입된 12억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진입로 선형개량, 용·배수로정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조기발주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벽한 시공을 위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모든 지구에 대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발빠른 행정처리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흥군, 벼 안전육묘 종자 발아력 검사 지원

고흥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못자리 안전육묘를 위한 종자 발아력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다.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게 발아력 검사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드시 자가채종 종자 사용 농가는 볍씨 200g(종이컵 2컵)에 주소, 성명, 품종, 연락처를 기재하여 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5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발아율이 높은 종자를 확보하여 육묘하면 초기 영농에 도움이 되므로 발아율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종자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발아검사를 통해 우량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 발아율이 떨어지는 종자는 증파하여야 하며, 종자 소독약은 반드시 정량, 온도, 침지시간을 준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호응

식량작물교육·농기계안전사고 교육 등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해의 농사를 설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50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품종 선택 및 재배기술, 토양관리기술 위주의 식량작물교육과 올해부터 전 농작물에 도입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교육, 농기계 교육, 밭작물재배기술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중 특히 호응이 높았던 농기계 교육은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져 농가들이 크게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겨 부주의한 농기계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동절기 농기계 올바른 관리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PLS 전반에 대한 교육과 동영상 시청으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읍면단위 교육이 완료되면 대봉감재배기술, 무화과재배기술, 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실천기술 등 420여명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전문교육이 이어질 계획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마을리더 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난 18일 청계면 월선권역 다목적회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마을을 위해 '2019년 무안행복 수련마을 만들기 마을 리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6번째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수련마을 만들기를 신청한 무안읍 양림마을 등 15개 마을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별 주민리더 1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무안군 마을 만들기 추진방향에 대한 무안군 관계자의 설명을 시작으로 소통 전문가 오우식 박사를 초빙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주민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군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2019년도 수련마을이 확정되면, 마을에 방문하여 전문가(퍼실리데이터)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주민스스로가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을리더 선진지 견학을 통해 2월말까지 마을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초에는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만들기 경험 축적으로 농립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자율개발, 5억 원)공모사업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마을리더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고민하고 발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색다른 회의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맞는 마을만들기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무안=이가성 기자

화순군, 신속집행 '총력' 지역 경제에 활력 '기대'

화순군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전 행정력을 쏟는다.

화순군은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형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최근 일자리사업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은 상반기에 204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1891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다. 군은 상반기에 SOC사업의 80%를 발주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의 70%, SOC사업 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군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예산 158억 원 중 11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신속집행 효과를 높인다. 또, 군은 지역 주민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월 중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